



천체 관측

편집부

한자로 하늘을 天이라고 쓰는데, 이 글자를 풀어보면 大자 위에 一자가 더 붙은, 즉 가장 큰 것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天文學이란 굉장히 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선배의 말씀으로는, 천문학을 공부하려면 모든 자연 과학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에 통달해야 하는, 아주 거창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밤 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천체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복잡한 천체의 운동을 모르더라도, 그저 천체를 보고 신비함에 감탄하여 그 곳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목적이다.

그러나 무작정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천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더욱 깊이 빠질 수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별자리이므로 이 지면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별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별자리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신화가 있으므로 같이 조사하여 알아두면 천체를 즐기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 봄의 별자리

봄이 되면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한 '북두칠성'이 북쪽 하늘에 자루를 위로 한 채 높이 떠 있다. 이 자루 끝을 계속 따라가면 '목동자리'의 '아크투르스'라고 하는 밝은 1등성이 있고, 이 별을 지나서 계속 나가면, 또 1등성이 나오는데, 이 별은 '처녀 자리'의 '스피커'라는 별이다. 북두칠성의 자루에서 이 별들까지 연장하여 보면, 하늘에 커다란 곡선이 생기는데, 이것이 '봄의 대곡선'이다.

그리고 목동 자리의 옆에는 '왕관 자리'가 있다. 이것은 공해로 찌든 서울에서는 찾기가 약간 힘든 별자리지만, 시골에서 보면 진짜 왕관이 떠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여서 오래도록 인상에 남을 것이다.

◎ 여름의 별자리

8월쯤, 조금 늦은 저녁에 하늘을 보면 1등성 세 개가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여름의 대 삼각형'인데 바로 여름하늘을 대표하고 있다.

삼각형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직녀성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별이 견우성이다. 이 별들을 공해가 없는 시골에서 보면 그 사이로 찬란한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전설이 생각난다.

◎ 가을의 별자리

가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별이 드물어서 깨끗한 가을의 하늘이 좀 섭섭하게 보이지만, 하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을의 사각형'은 빼놓을 수 없다. 이 가을의 사각형은 남쪽의 '페가수스 자리'와 북쪽의 '안드로메다 자리'로 이루어 지는데,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눈으로 보이는 외계 은하인 유명한 '안드로메다 대성운'이 있다.

◎ 겨울의 별자리

겨울은 가을과는 정반대로 온 하늘의 밝은 별이 모두 집합한 것처럼 밝은 별이 많이 보인다.

별자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온 자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남동쪽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큰 개 자리'의 '씨리우스'가 있고, 그 위로는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있다. 또, 작은 개 자리 위에는 두 개의 밝은 별을 각각 머리로 하는 '쌍둥이 자리'가 정말로 쌍둥이처럼 사이좋게 높이 떠 있다.

그 외에도 오각형의 '마차부 자리', '황소 자리' 등 유명하고 밝은 별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역시 겨울은 천체 관측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나는 하늘의 가장 기초적이고 알아두어야 할 별자리를 설명하였지만, 실지로 별자리를 찾는 데는 여기에 설명이 더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책을 뒤져 가면서 별자리를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익혀 놓은 별자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으므로, 조금 더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관측을 한다면 천체에 대한 더 많은 흥미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